

2

지관(地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Views of Earth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 땅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자생 근대성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 질문:

- 각각의 사상에서 땅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 자생적 근대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핵심 개념 정의

지관(地觀)

땅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관점으로, 천지(天地) 구조에서 땅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유 체계

자생적 근대성

외래 근대와 구분되는, 내부 사상 체계에서 출발한 근대성으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 전망 포함

동학사상 / 대순사상

- 동학사상: 최제우가 창시한 19세기 신종교 사상, '기화(氣化)' 개념 중심
- 대순사상: 강증산이 창시한 신종교 사상, '조리(調理)' 개념과 신명사상 중심

동학사상의 기화(氣化) 개념

동학은 땅을 천지에 속한 일부가 아닌 초월천에 대비되는 천지 개념으로 기화(氣化)로 표현합니다.

기화(氣化)의 의미: 우주를 구성하는 심오한 에너지이자, 만물의 변화원리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 -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

동학사상에서 기화는:

- 인간과 자연의 외부적 연결 원리로 작용
- 동서양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활용
- 천인관계에서 기화로 드러나는 물질적 근대성의 토대

대순사상의 조리(調理) 개념

- 대순사상은 '기화'에 조리(調理, 조화의 이치)를 더해, 땅이 우주 질서의 중심적 조율자임을 강조

| "天用地用人用之調理綱紀統緒乾坤此之謂造化手段也"

- 이(理) 개념의 강조 - 땅은 이치의 중심이 되는 존재
- 리(理) 범주의 특징: 포용성·다양성·동태성

대순사상의 리(理)는 음양오행의 '토(土)' 개념에서 출발 - 동학사상의 '기화' 중심 사상과 차별화되는 지점

노이무공과 천지성공 비교

● 노이무공(勞而無功)

동학사상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용어

성공의 사례가 없었음을 함의

● 천지성공(天地成功)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땅과 하늘의 완전한 조화와 성취를 의미

천지가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이루는 개념

땅과 하늘이 음양합덕되는 지상천국의 구현

자생적 근대성에서의 의미:

- 동학사상: 불안한 미래와 한계를 인정하는 자기성찰적 근대성
- 대순사상: "지덕(地德)"을 강조함으로써 안심안신의 생활이 가능한 완성적 근대성
- 두 용어의 대비를 통해 한국적 근대성의 발전 방향 제시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한국의 신종교 사상이 제시하는 근대성은 서구의 외래 근대와 구별되는 자생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동학사상	대순사상
기화(氣化) 중심의 내재적비판적 사유	조리(調理)와 신명, 음양오행 중심의 통섭적·포용적 발전론
물질적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 전망	천지 성공(天地成功)을 통한 음양 합덕의 지상천국 실현
단기적, 외부적, 사회적 개혁 지향	장기적, 종교적, 신명에 의한 개혁 지향

두 사상 모두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근대 담론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 존중과 조화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시사점

- 동학과 대순의 지관 비교를 통해 한국적 근대성의 다원적 의미 도출
- 기존 서구 중심의 근대 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 정체성 담론, 생태 및 종교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시사점 제공

본 연구는 기화(氣化)와 조리(調理)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신종교 사상이 제시하는 자생적 근대성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과 글로벌 문명 담론에서의 독자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